

# 광주 고교생들 일제 강제노역 현장을 가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한·일청소년평화교류 진행

## 미쓰비시 지하군사공장 터널·윤봉길 의사 암매장지 등 방문...한·일 토론회도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일제가 저지른 만행의 흔적을 더듬는 체험에 나선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역 고등학교생 24명과 함께 3일부터

7일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을 했던 현장 등을 답사하는 ‘2015 한·일청소년평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일청소년평화교류 프로그램은 지난 2010년 8월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의 초청으로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나고야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그동안 124명의 한·일 청소년이 양국을 오가며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올해로 6번째인 행사에 참여하는 광주지역 14개 고등학교 1~2학년생 24명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옛 공장 터 ▲미쓰비시 지하군사공장 터널 ▲미쓰비시 오에 공장 내 순직비 ▲도난카 이 지진 희생자 추도비 ▲세토 지하 군수

공장 ▲가나자와의 윤봉길 의사 암매장지 등 일본 나고야와 도야마 일대 조선인 강제동원 노역 현장 등을 둘러보게 된다.

학생들은 또 일본 청소년과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일제 강점기, 후지코시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 단체인 ‘제2차 후지코시 강제 연행·강제 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리쿠리연락회’도 이번 행사에서 전쟁 체현자의 이야기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역사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김선호 공동대표는 “올해로 광복 70년을 맞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며 “광주 청소년들이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18민중항쟁에 있는 민주·평화 정신을 일본 청소년에게 소개하고 역사적 소명의식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3일 광주지역 고등학교생으로 구성된 ‘한·일청소년 평화교류단’이 일본 나고야 아이치 민주회관을 찾아 현지 시민단체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를 방문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문화교류와 창조 선도할 문화전당, 국가 아이콘 돼야”

방선규 신임 문화전당장 직무대리 인터뷰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위상에 걸맞은 콘텐츠(전시·공연 등)를 구축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방선규(56) 신임 아시아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3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문화교류와 창조를 선도하는 기관이 사실상 없는 대한민국에서 문화전당이 국가의 아이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화전당은 광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아시아에도 공헌하는 창조적인 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단순 예술기관에서 벗어나 문화산업 콘텐츠를 개발, 문화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 “문화전당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특징과 장점을 부각시켜 관심을 환기시키는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직무대리는 “문화기관이 돈을 많이 벌수는 없지만 ‘돈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면서 “문화전당에 대한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31일 단행된 전당장 직무대리 교체인사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바라는 의의가 담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 직무대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와 행사 28회에 합격한 정통 관료다. 국경홍보처 홍보협력담당과 문화부 문화정책관, 문화예술국장, 국민소통실장 등을 거쳤으며, 한글날 공휴일 제정장과 국가브랜드위원회 설립, 국립현대미술관과 대한민국의사박물관 개관 업무를 실무적으로 이끌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화전당 개관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문체부가 전당장 직무대리를 전격 교체한 건 방 직무대리가 그간 굵직한 기관 개관 업무에서 보여준 추진력과 대외교섭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이란 후문도 나오고 있다.

그는 한글날 공휴일 제정장과 관련해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등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다. 워낙 인맥이 넓은 덕분에 문체부 내에서는 ‘마당발’로 통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

# 광주·전남 광복 70주년 행사 다채 시, 14일 ‘평화의 소녀상’ 제막...도 ‘태극기 나무숲’ 조성 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과 태극기 나무숲 조성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광주시는 14일 오후 3시 40분 광주시청사 ‘시민의 숲’ 앞 녹지공간에서 ‘광주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열 예정이다.

또 5·18기념재단도 ‘2015 메이 플라워 버스킹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오는 14~15일 광주시 서구 성춘동 5·18 기념공원 야외광장에서 열린 예정인 이번 행사는 해비메탈과 하드록을 제외하고 포크, 댄스, 힙합, 재즈 등으로 확대했다. 축제 이름엔 80년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5월의 의미와 17세기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을 떠나 새로운 땅 미국에서 도전했던 개척자들의 정신을 기억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게 5·18기념재단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3일 오전 1945장의 태극기를 도청 열린 마당에 식재된 20그루의 나무에 매달 ‘태극기 나무숲’을 조성했다.

또 오는 10일부터 22개 시·군에 제공한 ‘광복 70년, 1945&2015’ 특별 기획 사진 전시를 통해 전남의 광복 당시의 모습과 현재를 재조명한다.

15일에는 도청 윤선도 홀에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의미하는 크기로 가로 8.15m, 세로 1.945m의 손도장 태극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900여명이 참여해 만들 계획이다. 또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 이후 같은 해 4월 8일 목포에서 독립만세



전남도는 광복 70년을 맞아 3일 도청 열린 마당에 태극기 나무를 조성했다. 도는 광복의 해인 1945년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1945장의 태극기를 도청 열린 마당에 심어진 20그루의 나무에 매달아 태극기 나무를 만들었다. <전남도 제공>

운동의 중심 역할을 했고, 그 역사를 매년 재현하고 있는 정명여고(당시 정명여학교) 학생 280명이 참여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플래시몹을 계획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차량용 태극기 배부(목포·고흥), 바람개비 태극기 설치(화순·강진), 가로면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무안군은 화산연꽃축제장에 마련된 나라꽃 무궁

화 큰 잔치(8월 13일~16일)에서 사생대회 및 무궁화 묘목 나누어 주기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유현석기자 chadol@/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조선인 위안부 없는 곳이 없었다”

조선인 전범 증언 공개

“수마트라든 싱가포르든 인근에 조선인 위안부가 없는 곳이 없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 군무원으로 일하다 일본 패망 후 전범재판에까지 섰던 한국인의 생전 증언 영상이 공개됐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는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 22주년인 4일을 앞두고 싱가포르에서 B·C급 전범으로 재판을 받았던 전남 출신 송복섭(1916년생·작고)씨의 1990년대 초 인터뷰 영상 일부를 3일 공개했다.

송씨는 1992년 언론에 자신이 있던 부대에서 운영된 조선인 위안부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족회에 따르면 송씨는 1940년대 초 강제징용을 피하려 일본군 군무원으로 입대해 인도네시아에서 포로감시원과 보급병 등으로 일했다.

송씨는 1992년 한 지역 일간지에 자신이 일제 패망 후 수마트라에 만들어진 조선인 자치조직 ‘조선인회’ 간부로 있을 때 인원을 파악하려고 적어뒀던 61명의 여성 명부를 공개하면서 이들이 모두 일본군 위안부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 노안(老眼)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이용하신 시술/초정밀 인공 수정체/레스토렌즈/레인드름 나이비전 인레이

부착용·수술용·아간 및 비전·노안라식·수술시 건조증등이 생길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일 제 140611-중-59153호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 투데이 경매

중흥동 대치 대인교차로인근 일반상업 지역 도로인접 오피스텔 무인텔 적합  
대지 3190㎡ (965평)  
감정가 40억 8천  
최저가 28억 2천

광주 북구 일곡동 근린 상가주택 지하1층~지상 5층  
대지 755㎡ 건물 1360㎡  
감정가 16억  
최저가 11억 2천

광주 광산구 북동동 주유소 부지 나주~송정간 도로 위치  
대지 1988㎡ 건물 517㎡  
감정가 8억 8천 5백  
최저가 8억 8천 5백

1.광주 평동공단 공장  
대지 2073㎡ 건물 1187㎡  
감정가 16억 3천  
최저가 9억 1천  
2.화순 도곡면 천암리 공장  
대지 2811㎡ 건물 1474㎡  
감정가 7억 6천  
최저가 5억 4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